



도지사 시군방문(임실군)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 연두방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25일 임실군청 강당에서 심민 군수와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전북의 꿈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사진=전북도>

도,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 진작 '올인'

전북도-경제기관, 사업 빠르게 집행...민생경제 회복 가속화
지역사랑상품권 5천844억, 민생지원금 1천263억 조기 지급
신보 1분기 3천689억 공급, 한은 한시특별지원자금 1천6백억 지원

전북자치도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살리기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민생경제 살리기 점검 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 대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7개 경제 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소비촉진, 기업 지원 등 3개 분야 45개 사업(총 3천186억원 규모)을 신속 집행 중이다. 특히 3월까지 전체 예산의 40%(1천259억원)를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경제사업 신속집행 철저 △민생경제 관련 사업 추경 적극 검토 △정책 수혜자인 유관기관, 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소비촉진 시책사업과 건의사업 등도 논의했다.

지역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조기 추진한다. 25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1조3천36억원이며, 1월에는 평소(평균 936억원)보다 2배 확대한 1천845억원(전체 규모 중 14%)을 발행했다. 특히, 발행시기를 최대한 서둘러 내달까지 5천844억원(45%)을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추경에 5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군에서도 예비비,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소비진작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 민생회복(안정)지원금은 정읍시가 작년 12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 5개 시군이 뒤따르고 있으며, 1천295억원 중 97.5%인 1천263억원이 지급돼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내수 소비 증가가 기대된다. 그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대상 제한을 완화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도내 경제기관도 자금 조기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4년 대비 18.3% 증가한 역대 최대인 1조 2천억원의 자금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1분기 3천689억원을 조기 공급해 내수 촉진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모니터링에 따라 2월에 확대 배정된 한시 특별지원자금 1천600억원을 금융기관을 통해 저신용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즉시 지원한다.

/김은지 기자

'23년 전북 경제성장률 -0.2%...제조업 전년比 0.9%p 하락

좋은정치시민넷, 통계청 자료 활용 전북도 GRDP 분석
1인당 GRDP 3628만원, 전년대비 5.2% 늘어 전국 14위
전북경제 역성장 심각한 문제...청년인구 유출로 이어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5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활용, 전북자치도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전북도의 경제성장률이 -0.2%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이 1.4% 증가해 저성장 기조를 보이는 했지만 전국 시도 중에서 전북과 충북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명목 지역내총생산과 실질 지역내총생산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당해 연도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 규모를 나타내며 실질 GRDP는 당해 연도 생산량을 전년도 시장가격으로 계산한 값으로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된다.

전북도의 2023년 명목 GRDP는 6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천억원, 4.7% 증가했다. 그

러나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실질 GRDP는 5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천억, 0.2% 감소했다. 전북도 명목 GRDP는 전국 GRDP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0.1%p 증가한 수치다. 전북 GRDP는 전국 12위 수준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북도 명목 GRDP를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농업·농림업(△4.8%)과 정보통신업(△0.3%)이 감소하고, 나머지 산업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광·제조업이 23.5%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생산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경제분야는 제조업으로 0.9%p(포인트) 하락하였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1.4%p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1인당 GRDP는 3천628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나, 전국 14위로 전년도보다 1계단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78% 수준이며 1위 지역인 울산광역시와 비교하면 45% 수준에 불과하다.

손문선 대표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면서 "전북도가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활동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조업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소득과 지역 격차,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계"라며 "특히 23년 전북도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청년층 유출과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특단의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 기자

전북자치도,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대폭 확대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지원 안정적 정착 지원
250가구 50억 지원 예정, 도내 정착 유도 및 주거 안정 강화

전북자치도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2023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최대 2천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청년은 최대 3천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4천만원, 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천

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원 기간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여부 등 심사를 거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93%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만큼, 확대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총 719가구에 12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250가구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한다!

서해안철도란?

군산 새만금에서 부안과 고창, 전남 영광, 함평을 지나 목포까지 호남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부안군의회

道, 청년-지역 상생 모델 구축...‘청년 아이디어’ 공모

연간 4천750만원 지원...청년단체 16곳 선정 사업화 지원, 내달 21일까지 신청 가능

전북자치도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북자치도는 7억6천만원을 투입해 16개 청년단체를 선정하고, 최대 연간 4천7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청년단체·법인으로, 대표가 청년인 경우,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사업참여 구성원의 청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단체·기업이어야 한다.

공모 주제는 청년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 ▲청년 인구 유입 또는 청년의 결혼·출산·보육 등 저출산 극복 방안 ▲청년의 문화 창작 및 향유 지원사업 등이 있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발굴 아이템 고도화, 우수 아이템 개발 비용, 전문가 컨설팅, 디자인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는다.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단체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거주 지역 시군청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자치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문화예술 취약지역에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퍼스널 아트’ 사업, 취준생을 위한 영상 자기소개서 제작 지원, 청년 소형 주거공간 제작 워크샵 등 13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소민 기자

신영대 의원, ‘노후주택 보수 비용 지원법’ 대표발의

신 의원, “적절한 지원 통해 입주민 부담 줄이고 안전 문제 해결해야” 강조



신영대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신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

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천50만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응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또한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노후주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연구원 백년포럼 27강 “지속가능한 도시, 지자체 의지와 역할에 달려”

기후변화에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5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 제27강을 개최했다.

이번 백년포럼 강연자로 나선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물 부족 및 오염, 플라스틱 위협,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요리 매연’은 디젤 매연보다 훨씬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1군 발암

물질로 여성 폐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미국 뉴욕의 요리 매연 제어장치 설치 의무화 등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에서는 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40~70%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환경문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핵심은 생활, 문화, 사회, 산업의 ‘대전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북자치도와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탄소중립 관점과 제품 생애주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인드 변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후변화, ESG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관행적 제도, 조례, 규정 등 점검, 에코라이

프를 위한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지 기자

김성수 도의원, 교원 및 학생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교원의 건강과 학생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

대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행 직전 교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교원의 건강검진 등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휴직, 치유·복귀 등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성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이 발견되면

즉각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포함한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늘봄 전담인력은 9천

전북도, 소나무재선충병 공동 방제 전략 논의

산림청 등 전문기관 협업으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전북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5일 완주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방제 협의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최근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진안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효율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담당자, 서부지방산림청, 무주·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도내 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제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최근 이상기후와 온난화로 매개충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감염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제안된 방제 전략을 반영해 4월 말까지 상반기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상국 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용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효과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감염목 이동 단속을 강화해 건강한 숲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김병곤 기자

이춘석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 추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땀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천5백만명을 돌파하면서 유실·유기 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 건수는 매년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신고 혹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준병 의원

들은 결국 안락사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지난해 공공 보호소에서조차 적정보호 두수 유지를 위해 보호 중인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가 이뤄

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거리를 떠돌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시는 지난 4일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환경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목 기자

김동구도의원, 자동차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도 마련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부품인증기관 인증 활성화 지원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전북자치도의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제도를 구축,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부품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대체부품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구축하고 대체부품 생산기업 직접화를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관 기자

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교원과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제도

를 마련하고 늘봄 전담 인력 확보 및 CCTV 설치 확대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김관 기자

30 Km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운전자 수칙

스쿨존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기

안전거리 준수하기

스쿨존에 주·정차 하지않기

전주시보건소,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 제시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시민 건강 돌봄 강화 등 전략 제시…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주시가 올 한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보건소 신년 브리핑을 통해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를 비전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6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 전략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 강화 ▲함께 만드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건강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 강화 ▲시민 안심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함께 보살피고 같이 예방하는 치매안심 도시 실현 ▲마음 돌봄으로 정신 건강 안전망 구축이다.

먼저 시는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에게 양질의 보편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

사 신축 이전을 준비 중으로, 올해 ▲보건소 신축 이전 사례 검토 ▲후보지 조사 ▲타당성 조사 및 보건소 역할·기능 확대 등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야간·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정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의 야간·공휴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속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활동과 비만·영양·질주·금연·구강·심뇌혈관질환과 같은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시민 건강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가임력) 검사비를 모든 20~49세 남녀에게 1인 최대 3회를 지원하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을 폐지하고 불가피한 시술 중단 시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임신 27주에서 36주 이내 임신부에게 제공하던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오는 3월부터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당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제공하던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올 하반기부터는 80세 이상 일반 시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

다.

시는 ‘대한민국 제1의 치매안심도시’ 실현을 위해 치매 예방·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 기능 개선 및 증증화 예방을 위한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치매 예방을 위한 한약 및 침구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끝으로 시는 시민의 마음을 살피는 정신건강 돌봄을 지속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검사 및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힘을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어르신 대상 통합 건강·의료 제공 강화

시-전주시의사회-전주의료사회, ‘2025 건강·의료 안전망 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복지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용현 전주시의사회장, 김권희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건강·의료안전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하는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의료 지원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 중심으로 주거와 돌봄, 영양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협약기관 간의 연석회의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왔으며, 현재 약 700여 명의 사각지대 노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주시의사회와 전주의료사회협회는 전주시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복지·돌봄 지원을 통합해 보다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의료·복지



전주시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복지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주, 완주 공공승마장 학생승마체험 활성화 협약 체결

오는 3~4월부터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학생승마체험 본격 추진 예정

같은 생활권으로 통하는 전주·완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해부터 전주승마장과 완주공공승마장 중 자유롭게 선택해 승마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승마체험 확대를 위한 전주-완주 학생승마체험 활성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 12월 완주·전

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을 통해 완주 공공승마장을 전주 및 완주지역 학생들의 거점 승마체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전주·완주 양 지자체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량을 확대했으며, 이후 완주승마장 승마체험용 말 구입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학생승마체험은 오는 3~4월부터 사업

이 추진될 예정으로, 추후 공고되는 접수 기간에 청소년의 보호자가 말산업정보포털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서 회원가입 후 전주승마장과 완주공공승마장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는 시험 운영되는 만큼 전주시 총 배치인원인 250명 중 완주공공승마장 배치인원은 34명이다.

이와 관련 전주와 완주에서 체험 가능한 학생승마체험은 일반승마와 생활승마가 있으며, 일반승마는 총 32만 원의 비용 중 9만 6000원(30%)을 부담해야

한다. 생활승마(사회공익)는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승마 체험은 총 10시간으로, 강습은 전주승마장(덕진구 호성로 19)과 완주공공승마장(화산면 화월리 613)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와 완주의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완주군과의 상생협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 수립

전주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이 계획에 따라 올 한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축공사장의 안전 품질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올해 추진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여름철, 겨울철 등 자연재난 취약건축물 안전 점검 및 대피 체계 구축 ▲건축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 등이다.

특히 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해빙기 대비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을 통해 결빙되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현장 내 지반 상태와 흙막이·옹벽 등 위험시설물 관리 상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노

후화된 건축물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시장, 노송동 시민과 소통 행정

도로 열선 설치 건의 등 주민 선안 관심사에 질의 응답도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25일 노송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노송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기타 자생단체 임원진들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의 중심부에 자리한 노송동은 25년째 해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남몰래 기부하면서 ‘천사마을’로 불리고 있다.

이날 우 시장은 2025년 시청 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민생) ▲미래 광역도시 대전환(도시) ▲강한 경제 일자리 도시(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문화) ▲일상 속 신바람 복지(복지) 등 5대 분야 18대 전략을 설명했다.

이러한 노송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우성해오름아파트 후문 옆 도로 열선 설치 건의 ▲노송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한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조성 추진 건의 ▲천사마을 상징 조형물 제작 건의 ▲노송동 천사(애) 반찬나눔을 위한 공유주방 설치 건의 등 주민들의 주요 현안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우 시장은 이날 제시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의 발전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시장은 오는 3월 4일에는 덕진구 혁신동을 찾아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2025년 전주시 SNS 시민홍보단’ 발대식 열려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개인 SNS 등에 홍보… 오는 12월까지 활동

전주시민들이 직접 전주의 매력을 찾고 알리는 ‘2025 전주시 SNS 시민홍보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전주시 SNS 시민홍보단’ 발대식을 열고 10명의 시민홍보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민홍보단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알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민홍보단은 오는 12월까지 전주의 문화·환경·사람 등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발굴해 글과 사진, 그림, 영상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해 개인 SNS를 통해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시민홍보단은 현장 취재를 통해 전주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로 전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전주의 정책과

축제, 문화행사 등 시청 소식도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홍보단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시 주요 행사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질 높은 SNS 콘텐츠 발굴·제작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수정 전주시 홍보담당관은 “전주의 문화와 이야기를 시민의 눈으로 담아내는 시민홍보단의 활약을 기대한다”면서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활동으로 전주의 다채로운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웹툰과 일러스트, 사진, 영상 등 콘텐츠 활용 능력을 갖춘 최종 10명의 시민홍보단을 선발했다.

/김영태 기자

양성과정 ▲경영회계사무원 양성과정으로, 전주시 거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교육 과정으로는 ▲노인 인지활동책놀이지도사 ▲ChatGPT와 AI 완전정복 과정 등이 진행되며, 내일배움카드제 교육 과정으로는 ▲기초의상제작 ▲실무에가까운엑셀 ▲감성캘리그래피 등이 운영된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이번 강사 위촉을 통해 여성 직업훈련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수강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강사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더욱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대미 수출 급감 전망…기업들 대응전략 ‘無’

관세 정책 변화에 8.4%~14.2% 감소 분석, 대미 수출 2023년 대비 2024년 25.2% ↓

자동차부품 1152만 달러 등 1억5천만 달러 감소 예상…WTO 규정에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 해법 못 찾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전북의 대미 수출이 최대 14%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로 도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전북의 대미 수출은 최소 8.4%에서 최대 14.2%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4년 대비 총 1억191만~1억703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을 의미한다. 이미 전북의 대미 수출은 2024년 11억 9823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2% 하락했다.

전북 핵심 수출 품목의 타격이 더욱 우려된다. 전북연구원 분석 결과, 25% 보편관세 적용 시 자동차부품 수출은 2024년 대비 678만~1152만 달러(-8.6~12.8%) 감소가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전북의 대미 수출이 최대 14%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철강관·철강선 분야도 15% 상호관세 적용 시 355만~604만 달러(-4.9~7.7%)의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여기에 미국이 부가가치세에 10%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3596만~6111만 달러(-3.2~5.1%)의 손실도 예측됐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의 대응 능력 부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89.8%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북과 같은 수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 역

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부담도 도내 기업들의 당면 과제다. WTO 규정에 따른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이 불

가능해진 상황에서 교환율 기조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수입과 수출 양방향에서 관세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 거래처들과 수수료 조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전례 없는 상황으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지난 24일 지역 내 경제 유관기관들과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차원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도는 수출 다변화와 같은 추상적 해법보다 각 기관이 즉시 실행 가능한 세부 대책 마련 등 역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준호 기자



도, 농촌기본사회 정책포럼…기본사회농촌부터

농촌기본소득·농민공익수당·농촌생활돌봄 3대 핵심 전략 제시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 민주연 "기본사회는 모든 주민이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다"며 "지역사회의 자치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재발제를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정책실장은 "농촌이 담당해 온 일터·살터·쉼터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농촌기본소득 ▲농민공익수당 ▲농촌생활돌봄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촌사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전북자치도의 정책혁신이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전북,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신청 즉시 배정…안정 정착 도모

작년까지 선정자 상시 배정, 올해 선정자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 도입…정책 건전성 강화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4일부터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에게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후계농 정책자금은 조기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추가로 4천5백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신청하면 즉시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들은 필요한 시

기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영농 정착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선정자부터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농들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전북사랑도민증 활용 플랫폼 연계 모색

전북사랑도민증·생생장터·전북투어패스·참참플랫폼 간 연계



전북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과 생생장터, 전북투어패스, 참참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해 플랫폼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전북자치도 관계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출항 도민과 전북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사랑도민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생장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지역특화상품 '9慶' 브랜드 고도화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4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북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로코노미) 상품 브

랜드 고도화 사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로코노미란 지역(Local)과 경제(Economy)를 합성한 신조어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혹은 공간을 일컫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축협 9개소, 농식품 판매 벤더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공 히트상품 개발, 신규채널 입점, 가공사업 수출확대 방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협력을 통해 전북 농식품 판로확대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전북농협은 참여 농축협 9개소를 통해 브랜드 히트상품 개발, 대형 식품박람회 참가, 신규 온라인 채널 입점

/최준호 기자

전주시, 관광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서 5개 유망 관광 스타트업 발굴

관광창업아카데미 교육 후 유망 예비 창업가 선발…팀당 최대 1천만원 실증비 지원, 한옥마을 일대 대상 아이템 실증기회 제공

'강한 경제' 전주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관광 분야 스타트업이 발굴됐다.

전주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관광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김장훈·김영선·김정재·홍진혁·이진명 등 총 57개의 우수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 관광창업아카데미'의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관광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28팀이 참여한 가운데, 여행패키지와 관광콘텐츠, 굿즈 등 전주시 관광산업의 미래를 밝힐 각종 아이템을 가지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된 5팀은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투자유치 등의 심화 교육과 선배 창업가 멘토링 및 IR 특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관광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총 5개의 우수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는 팀당 최대 1000만 원의 실증비를 차등 지원해 이들이 향후 5개월 동안 전주한옥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상용화 이전 지역특화 여행상품을 실증해 시장성을 검증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성과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오픈지플래닛 전주센터의 창업프로그램 및 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 '전국 1위'…국비 3억 확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BI육성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와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 갈 창업보육센터 육성에 기여하고자 진행된 공모사업이다.

바이오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대학교, ECO융합산업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가 함께 참여해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지난해 호남권 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2025년 지속 지원을 위한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상은 3억원(1개소), 중은 2억5천만원(2개소), 하는 2억원(4개소)을 지원하는 2025년 국비지원에서 바이오진흥원은 '상'등급으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중기부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는 각 참여 기관 간 정보 및 인적 인프라의 효율적 공유와 기관별 특화된 역할 분담을 통한 혁신적 운영으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컨테스트를 통해 20개소를 선정하고 기술 및 사업 고도화, 투자유치 역량강화, 창업 소외지역 컨설팅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이뤘다는 심사 의견을 제언해 주었다.

특히,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에프엘컴퍼니는 NS푸드페스타에서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수상과 이를 통한 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고 ㈜반석산업은 매출 24억에서 58억(242%)으로 고용 6명에서 18명으로(300%) 큰 성장을 이루었다.

바이오진흥원은 올해도 프로그램을 보완 개편해 최적의 맞춤형 창업기업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20개사 창업기업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전북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을 수주하게 됐고, 본 사업을 통해 전북 도내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을 촉진해 전북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전후방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본 사업이 지역 창업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현장 맞춤형 정책 추진 기구 개편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 위한 ‘빅데이터담당’·학력신장 강화 위한 ‘초등장학담당’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자로 기구 개편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구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담당’ ▲학력신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등장학담당’ 신설이 눈길을 끈다.

정책기획과에 신설되는 ‘빅데이터담당’은 데이터 연구·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유초등특수교육과의 ‘초등장학담당’은 전북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학력신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게 신설 목적이다.

기존 초등교육과정담당에서 학력신장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 정책 기조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해 일부 담당 명칭도 변경된다.

미래교육과 방과후·돌봄복지담당은 늘봄·복지담당으로, 중등교육과 고교교육과정담당은 중등교육과정담당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은 민주시민·환경교육담당으로, 행정과 행정관리담당과 기록통계담당은 각각 조

직관리담당, 행정기록담당으로 바뀐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기구 개편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정원 조정을 최소화했고, 교육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업무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에도 필요시에는 교육청의 기구와 기능을 보완해 교육환경의 빠른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높인다

계약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공사·물품·용역 계약 전문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서 '2025년 상반기 계약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는 업무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계약업무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물품·용역 계약 실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계약 실무 ▲MAS(다수공급자계약) ▲인쇄물, 해외연수용역 계약 사례 ▲채권 압류 및 공탁실무 등 업무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로 운영된다.

또한 청렴교육, 전북교육장터, 공공구매제도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올해 전북교육청은 ▲계약업무 질의응답 '백문백답' 제작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운영 ▲입찰 적격심사 표준 서식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업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체험 중심 학생 안전교육 강화·안전체험시설 확충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학교·위험 요인 발굴 개선 동아리 운영 및 남원 학생안전체험관·정읍 유아안전체험장 조성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안전교육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 7대 영역 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컨설팅과 안전교육지원단 운영, 안전교육 전문 강사 양성 등을 통해 7대 영역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학교와 위험요인 발굴 개선 동아리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과 유아안전체험장 등 학생안전체험시설도 확충한다.

남원 학생수련원 내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은 학생 안전 7대 영역을 체험하

는 시설로, 내년 개관을 목표로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정읍 옛 용곡초등학교에는 유아안전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21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녀가 학교에 잘 등교했는지, 수업 후 잘 하교하였는지 학부모 스마트폰 알림 또는 문자 서비스로 알려주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운동장 등 교내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도 설치한다. 신속한 대처로 인한 피해 최소화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교육청, 2025년 전북미래학교 운영으로 ‘미래교육 선도’

올해 146개교로 확대... 전 교원 대상 수업공개·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에듀테크 관련 연수 30시간 이상 의무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 전북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 모델을 육성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을 실현하는 학교다.

올해 전북미래학교는 146개교가 운영된다.

전북미래학교의 성과를 확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기초·기본학력 기반 학력 향상 ▲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중심 수업혁신 실현 ▲에듀테크 및 AI 코스웨어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자율과제로는 ▲IB 프

로그램 ▲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문예체교육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각 과목별 교과중점(국어·예술·수학·과학·영어) 미래학교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전북미래학교는 수업혁신을 위해 전 교원 대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학교장 승인 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수 연 30시간, 에듀테크 관련 연수도 30시간 이상을 의무화한다.

전북교육청은 미래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교 및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고, 전북미래학교의 연차별 운영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교원들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지원단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제65회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합격자 상당수 서울대학교병원·고려대학교병원·이화의료원 등 수도권 병원 취업 확정... 우수 교수진·교육 환경 바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간호학과 졸업생 66명이 전원 합격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최근 많은 병원들이 취업 규모를 줄인 상황에서도 합격자 가운데 상당수는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이화의료원, 국립안성대 등 수도권의 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의

전북 지역의 병원에 취업을 확정된 상태이다.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김현영 학과장은

전북대 고혜운 박사과정생, 교육부 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나노융합공학과 BK 나노융복합 에너지 혁신 소재·부품 인재양성사업단(연구단장 이승희)의 고혜운 대학원생(지도교수 정광윤, 공과대학교분자나노공학과)(사진)이 2024년도 4단계 BK21 사업 우수 참여 인력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 중인 583개 교육연구단(팀)에서 추천된 246명의 인력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29명이 선정된 것으로, 연구 성과와 학문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받은 결과다.

고혜운 대학원생은 2019년부터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며 정광윤 교수 연구실에서 반응성 액정 단량체를 이용한 구조 제어 및 분석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JACS)’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등 재료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4편의 주저자 논문과 15편의 공동저자 논문을 포함해 총 19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8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며 논문뿐 아니라 특허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최성민 기자

은 “국가고시 전원 합격은 간호교육인증 평가에서 제시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비학점 교육과정 등 양질의 간호교육을 진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전문가형, 실무형, 모범형 간호인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의 산실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대 간호학과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보건교사 자격증(2급 정교사)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또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이 10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시설을 재정비하고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부주의화재 예방하자!

화재발생 원인1위 부주의

1

담배꽂초는 반드시 불이 꺼졌는지 확인!

2

화기는 항상 꺼졌는지 확인!!!

3

쓰레기 소각 및 눈·발 태우기 절대 금지!!!

4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 차단!!!

사소한행동. 습관이 큰 화재 막을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행동하여 화재 예방 합시다.



군산시, 도시숲 조성… 지역사회 헌수 활발

군산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유도를 위한 '미래의 푸른 숲' 조성 사업이 지역사회의 참여가 쇄도하며 순항 중이다.

지난 25일 군산시에 따르면 ㈜대운산업개발 환경식 대표가 작년 12월 준공한 철길숲 1구간(활력림) 일원 그리심 교회 옆 유희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기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환경식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군산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뜻을 같이하고 싶었다.”라며 “지역의 기업인으로서 동참하고 싶어 기탁을 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함 대표의 헌수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헌수 활동에 동참해 준 개인과 단체의 소중한 뜻이 더욱 모여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간 군산시는 녹색도시의 비전을 담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전체 사업 공간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 화물역까지 총 2.6km로 활력림, 여윌림, 추억림, 어울림 등 4개 테마숲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재활보조기구 최대 6개월 무료 대여

정읍시 보건소가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장애인과 부상자들의 재활을 돕는다.

이번 서비스는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쉽게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추진된다.

대여 대상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부상으로 인해 보조기구가 필요한 시민이다. 이용자는 최대 3개월간 무료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 지팡이, 워커, 목발 등 다양한 재활보조기구로 구성됐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샘플보건지소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샘플보건지소 민원실(063-539-66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영농폐기물 기동수거반 운영… 주민 불편 해소

정읍시가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보상금 지급과 기동수거반 운영으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농번기 전후인 3~4월, 11~12월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지정하고 내달부터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영농폐비닐(kg당 100~140원) ▲플라스틱 농약빈병(개당 1600원) ▲농약봉지(개당 3680원)이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자를 통해 수거되거나 직접 수거사업소로 가져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기동수거반'도 운영한다. 다만, 기동수거반이 수거한 폐기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신규 산업단지 조성 토태·시가지 순환도로망(수성~구룡) 구축…백년대계 기틀 마련

정읍시가 2040년까지의 도시 발전 방향을 담은 '정읍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읍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으로 수립됐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60인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의식조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 있는 고을, 정읍'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관광 휴양도시 ▲첨단산업 경제도시 ▲미래 농생명도시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활력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도시 공간구조는 1도심 4지역중심 2특화핵으로 설정됐다. 신태인(농업거점), 입암(산업거점), 고부(역사문화 관광거점), 칠보(관광휴양거점)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정읍첨단(첨단산업거점)과 내장산(사계절 관광거점)을 특화핵으로 조성해 지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2024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생활권 계획은 기존 1개 대생활권, 5개 중생활권, 23개 소생활권 체계를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 2,09㎢를 확보해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첨단의료 바이오 산업 육성, 미래형 신규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첨단산업 경제도시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교통량 분산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환도로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1차, 2차, 3차 순환도로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도심 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물류·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성동과 구룡동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로망을 구축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며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북부권, 농업기계 임대 더 편리해진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본소' 망성면 행복복지센터부지 내 조성… 내달 10일 본격 운영

익산시가 북부권 농업인들의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영농 환경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5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시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본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북부본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건축면적 497㎡, 1층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보관창고, 관리사무

실, 세척장이 마련됐으며, 시설하우스가 집중된 북부권 농업 환경에 맞춰 소형트랙터, 보행관리기 등 15종 52대의 농업기계가 구비됐다.

시는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북부본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번기 전인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북부본소 개소로 용안·용동·망성면 등 북부권 농업인들이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사업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권역별 균형 있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수도산스포츠센터, 무료 시범 운영 시작

정식 개관 앞서 이용자들 의견 수렴… 내달 4일~22일 헬스장·수영장 오전·오후 운영

익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수도산스포츠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수도산스포츠센터 정식 개관에 앞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수영장과 헬스장을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수도산스포츠센터는 수도산 공원 내 민간특례사업으로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953㎡의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은 성인풀(25m×15m×1.4m, 6레인)과 유아풀(6.5m×4m×0.5m)로 이뤄져 있다.

시범 운영 기간 헬스장은 평일 오전 1회(09:30~11:30)와 오후 1회(13:00~17:30)에 각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수영장은 평일 오전 1회(09:30~11:30), 오후 2회(13:00~15:00, 15:30~17:30)를 운영하고 각 회차당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은 3월 15일과 22일, 2회 운영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정식 개관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수도산스포츠센터(063-859-4390~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

세제 감면·생산 제품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허용·자금 융자·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되며 입주 기업들의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연장 지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년 단위로 지정된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2015년,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한번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됐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생산한 제품은 2년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자금 융자, 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서남권 중심부에 위치해 수도권에서 KTX와 SRT를

이용하면 약 1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광주·전주 등 주요 도시와도 고속도로를 통해 40분 이내로 연결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인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정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등 정부출연 연구소가 입주해 있어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사랑상품권 앱 기부기능 도입

간편한 기부 플랫폼 구축… 소액 기부 손쉬운 나눔 참여 기대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애플리케이션 군산사랑상품권(chak) 앱에 상품권 기부 기능을 추가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 기능 도입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액 기부 장려 ▲자발적 착한 기부를 통한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군산사랑상품권(chak) 앱의 메인 화면에서 '기부하기' 탭을 클릭한 후 기부처인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면 군산시로 지정 기부가 완료된다.

특히, 기부영수증을 신청하면 '사랑의 열매' 누리집과 연동되어 신청까지 빠르게 완료된다. 또한 연발정산을 위한 기부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고 기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의 온기는 더 퍼져나가야 한다. 군산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소액의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승용차 1대 당 1,210만 원·화물차 1,750만 원 보조금 지원

군산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2025년 전기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은 승용차 370대, 화물 150대 총 52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 당 1,21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2자녀 이상) 및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 등을 위한 추가 보조금 혜택도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gunsan.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환경과(063-454-4462)로 문의하면 된다.

기후환경과 김현숙 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군산, 쾌적한 군산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빈집 철거하고 주차장 확보한다

2억 4,500만 투입…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익산시가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시는 빈집정비 사업 대상지 11동을 선정했으며, 오는 12월까지 2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주차장, 쉼터 등으로 조성해 3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 활용하는 사업이다.

신청인은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고, 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景觀 개선,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46개소를 정비해 주차장 등으로 조성했으며,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본격 진행

사업비 2억2천8백40만 원 투입… 빈집 소유주 신청 가능

군산시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25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농어촌 지역의 빈집 증가로 인해 저해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작년도도 농어촌 주거용·비주거용 빈집 73동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2억2천8백40만 원을 투입하여 약 55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1년 이

상 방치되어있는 빈집 및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빈집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군산시의 농어촌 지역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정책과(063-454-42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김제시,소상공인에125억까지보증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농협,전북,국민,우리은행)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최대 5천만원)에 대해, 금전 채무를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시가 3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특례보증 재원 조성을 위해 시(5억원), 농협은행(1.5억원), 전북은행(1.5억원), 국민은행(1억원), 우리은행(1억원)이 참여해 총 10억원을 출연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5배인 125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사업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신용등급 1~7등급인 소상공인이다.



김제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인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11년째 매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77억원 상당의 자금(보증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민주당 지역위원회, 현안 해결에 ‘합심’

2025년 첫 정책협의회서 군정 현안 및 국가예산 확보 위한 상호 공조 도모

전북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2025년 첫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정책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도의원·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삼성전자의 신활력산단 부지 매입 및 용평리조트의 종합테마파크 리조트 부지 매입,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3000억원 투자유치, 신활력산단 첨단기업 3개사 1900억 투자유

치, 외국인근로자 정책 전국 선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과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를 돌아보며 축하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예산의 경우, 국·도정 핵심과제를 자세히 분석해 논리를 보강해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부처단계부터 국회단계까지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고창군 최대 현안인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관련,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 하반기에 확정되는 만큼,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인 설명과 건의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되

도록 합심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을대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기재부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발전을 위해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겠다”며, “고창군과 상호협력하고, 지역의 심부름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고창군의 현안을 해결하는 정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해 이뤄낸 눈부신 성과들은 모든 군민들께서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신 덕분이다”며 “올해에도 고창군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민대상 후보자, 내달 14일까지 추천 접수

산업·공익·교육·문화·체육 등 8개 분야별 1명씩 선발…5월 2일 시상

부안군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고 부안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2025년 부안군민대상 후보자를 내달 14일까지 추천 받는다고 밝혔다.

선발 분야는 효열, 산업, 공익 등 8개 분야로 각 분야별 1명씩을 선발한다.

추천서 접수기간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이며 수상 후보자는 각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부안군청 관과 소장 및 읍면장이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후보자 자격은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부안군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군은 부안군민대상이 모든 부안군민의 귀감이 되는 영예로운 상으로서 그에 걸맞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며 후보자가 추천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미선발할 계획이다.

수상자 결정은 추천서 접수 후 서류심사, 현지실사, 군민검증을 거쳐 부안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천서 서식 및 제출서류 등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안군청 자치행정담당관 또는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51개 리·동 대상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작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을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는 중부권 51개 리·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개년 계획으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매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부권 48개 리·동을 대상으로 96개 필지를 선정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올해에는 중부권 51개 리·동 대상(요촌동, 검산동,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 청하면, 용지면)을 해당 행정부

지센터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동부권 52개 리·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은 지난 1910년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지적도에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110여년이 지난 현재, 도로개설, 택지개발,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인해 주민불편과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서부권 96개 필지를 선정해 현재 조례를 개정 중이며 어려운 시제정 속에도 비

예산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작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은 2024년 김제시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업으로 뽑히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불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최첨점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더욱더 귀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3·1절 맞아 고창 출신 노진룡·노병희 지사 묘소 찾아

심덕섭 고창군수가 25일 오전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인 노진룡·노병희 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전북서부보훈지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다.

노진룡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북감독부를 조직하고, 군자교 모집과 격문 살포 등 항일 활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노병희 지사는 항일투쟁에 나섰던 최익현이 대마도로 유배되었을 당

시, 한의사 자격으로 대마도로 건너가 치료에 전념하며 최익현이 별세한 후에는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처럼, 보훈의 정신이 국민들의 일상 속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 출신 독립운동참여자 103명에 대해 서훈을 신청하는 등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유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보육정책위원회…영아 필요경비 지원 등통과

부안군은 최근 2025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안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공무원, 공익대표,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 11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5년 부안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농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 지역 인건비 지원, 원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 변경, 영아 필요경비 지원 등이 논의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보건소,저소득층에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 보건소는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연중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로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가능하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어업인단체,송전선로건설 정치적변질강력규탄

부안군 19개 어촌계협의회, 부안군 선추협회, 부안군 어업인 연합회는 지난 25일 부안수협 4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토론회가 반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정치적 공세로 변질된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가 군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며 많은 유감을 표명했다. 반대 측이 주장하는 부안 양육유치와 관련해 부안군이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익헌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거짓 선동이 군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실제로 양육유치 결정은 전북특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대상자 확정 통보서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하면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김은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무릎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군보건소, 국가암검진

수검 홍보 활동 펼쳐

고창군보건소가 국가암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암종별 검진 대상자는 위암과 유방암은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폐암은 54~74세 중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이다. 통상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의미한다.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대장암(50세 이상)은 매년 검사하면 된다.

고창군은 50대 이상의 경우 매년 진행되는 대장암 검진에 대해 군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채변통을 비치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 암진단을 받을 경우 의료비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금연, 절주, 운동, 혈압·혈당 및 체중관리 등 암예방수칙 실천과 더불어 올해 국가암검진을 빠른 시일내에 수검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거래 질서 확립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전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76개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 계약서 미작성 및 부실 기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기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 신고 접수 시 즉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워크숍서

지정기부 우수사례 발표 ‘호평’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모범 사례로 뽑혀 우수사례 발표의 영광을 안았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표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워크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2024년 새롭게 시작된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1-영선고 야구부 지원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고창군은 영선고 야구부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3000만원)을 모집했다.

특히 다양한 매체와 20초 컷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기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고창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에 새롭게 도입된 지정기부사업을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수배 유소년 야구대회 개막

162개 유소년 팀 참가…3천명 방문 예정,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대회 기간 내 순창 관광지 홍보 예정…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성장 기여

스포츠산업의 선두 지역인 순창군이 대규모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10회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 팔덕다용도경기장 외 11개 구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27개 팀이 증가한 총 162개 유소년 야구팀이 참가, 약 3,000여 명의 선수와 학부모들이 순창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숙박업소, 음식점 등 상권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군은 대회 기간 중 삼일절 대체공휴일 연휴도 포함됨에 따라, 경기장 내에 관광 안내 부스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강천산, 힐링스파 등 순창의 대표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효과는 물론, 순창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산업의 선두 지역인 순창군이 대규모 유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제일고 축구장, 섬진강 체육공원 등 주요 체육시설에 특설 경기장을 설치하고, 혹한의 날씨에 안전하게 경기기 치러질 수 있도록 관람부스와 안전 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유소년 야구대회 중 역대 최대 팀이 참가해 순창을 위해 팔덕다용도경기장, 공설운동장, 제일고 축구장, 섬진강 체육공원 등 주요 체육시설에 특설 경기장을 설치하고, 혹한의 날씨에 안전하게 경기기 치러질 수 있도록 관람부스와 안전 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원시, 춘향제 준비 1차 회의…유기적 협력 강조

춘향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협업 F&B 운영·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등 진행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개최될 제95회 춘향제의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위해 25일 남원시청에서 춘향제 행사 준비 회의(1차)를 개최했다.

이날 남원시장 주재로 실과소, 읍면 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부서별 담당업무를 지정해 행사 추진계획 등을 청취했다.

최경식 시장은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무부서와 협력부서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으며, 각 행사 분야별로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 사고에 유의해 시민과 관광객의 입장에서 축제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춘향의 소리, 세상



을 열다’라는 주제로 남원 광한루 일원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소리가 메인테마로 한국의 소리,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로 크게 분류하고 100여가지의 다양한 공

연을 구성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더본코리아 협업 기반 F&B 운영,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대동길놀이, 유채꽃밭 등이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291회 임시회 폐회…도 통합 시군 조례 규탄

완주군의회가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통합 시군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익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완주군민이 원치 않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완주군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병기 전주시장의 통합 추진을 규탄하며,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통합이 무산될 경우 도지사와 시장도 모든 선거에서 불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돼 전북도 및 전주시 관계 기

관에 전달됐다.

김재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완주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살린 ‘걷고 싶은 길’ 조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존 도보 여행 코스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걷기 챌린지’와 지역 상품권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부건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부족한 일자리 및 경제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창업보육센터를 완주경제센터로 이전해 완주경제 정책 전반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순덕 의원은 삼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 및 ‘동학로’ 조성, ‘동학 문화 축제’ 기획 등을 제안했다. 또한 완주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유익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및 국민의힘 해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지원 예산 증액

남원시는 지난 24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남원시와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2025년도 우리시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공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 1월 추가경정예

산에 소상공인 예산을 대폭 증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초 민생안정지원금 230억 원을 전 시민 대상으 지급함으로써 일어 불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경우 1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이차보전을 연 3%에서

4%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상가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유치를 염원하는 피켓운동에 참여해 힘을 보탬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5개 분야 ‘1일 군수’ 3월부터 시행

분기별 운영 예정…지난 ‘22년 첫 실시, 소통행정 우수사례 호응

완주군이 올해 5개 분야의 1일 군수를 선정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2년 ㈜정석케미칼 대표이자 완주산단진흥회장인 김용현 대표를 시작으로 완주군 1일 군수제를 실시해왔다.

이 제도는 소통행정의 우수사례로 꼽히며 지역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민 누구나 1일 군수가 돼 군수 시점에서 각종 현안을 살피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민선 8기 완주군수 공약사업으로 도입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군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이장회의 등을 통해 ‘완

주군 1일 군수제’를 홍보하고, 본인 신청과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5개 분야에 총 9명의 후보자를 접수받아 지난 24일 선정심사를 통해 총 5명의 1일 군수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진정옥 공예분야 전라북도 명장, 일자리·산업·경제 분야 이흥기 완주수소연구원장, 보건·복지 분야의 백정열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교육·청년·아동 분야 이한나 완주군청 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농업·임업·축산 분야의 정봉락 전국한우협회 완주지부장 등 5명이 최종 선정됐다.

완주군은 분야별로 선정된 1일 군수를 3월부터 분기별로 1명씩 위촉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소재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제1회 졸업생 배출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에서 제1회 졸업생 13명을 배출했다.

남원시와 전북대학교가 협력해 운영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전북대 지역산업학과가 남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이달 25일에 2025학년도 제1회 학위수여식(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은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영태 남원시위원장, 황인섭 학과장

을 비롯해 졸업생, 재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해 학위수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등이 진행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4년간 주경야독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미래 지역산업 인재들로 글로벌 캠퍼스 추진과 함께 우리 남원 발전에 더욱 더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남원시는 2019년 지역의 전략산업 인재 육성 및 교육 경제 성장도시로의 발판 마련을 위해 전북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농업농촌혁신대학 입학식…블루베리 과정 신설

순창군이 지난 24일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농업농촌혁신대학’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입학식은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 강당에서 교육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농업농촌혁신대학 학장)도 직접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육 운영 안내, 학사 규칙 설명, 교육생 개인별 소개, 운영 규칙 회의 등이 이어졌다.

/순창=박지현 기자

농업농촌혁신대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순창군의 대표적인 농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과정이 개설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업기술센터와 소독개발 시험포 등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과정은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 견학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광객 혜택’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모집

남원시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2025년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점을 추가 모집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3년에 선정됐다.

남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관광객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에서 발급해 사용할 수 있으며 25년 2월 현재 발급자수는 134,802명으로 남원 정주민구 75,604명 대비 173%에 해당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은 관내 체험·숙박 7개소, 소품·식품 23개소 총 30개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맹점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식음료점,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가맹점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 홍보와 더불어 남원시 자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63-620-6174)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2036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기원 챌린지 동참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4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내 후보 도시 최종 발표일인 28일까지 릴레이 지목형 참여와 자유 참여형 챌린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희수 이사장은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상배 이사장의 지목을 받고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공단 직원들이 함께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 릴레이에 참여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전북의 문화와 도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계올림픽이 반드시 전북에서 유치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상식 완주경제센터장을 지목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지난해 이어 한의치매 예방사업 운영…참여자 모집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 장애와 인지 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창군한의사회와 협력해 운영된다.

사업 모집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어르신들은 지정된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구 치료를 주 2회, 4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7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사전 예약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약 1시간 가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정원이 총원 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과 문의는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063-650-5275~5277)로 문의하면 된다.

지정 한의원은 순창읍에 위치한 누가한의원, 은혜한의원, 원광한의원, 우리한의원, 순창한의원을 비롯해 동계한의원과 복흥한의원이 포함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임실군, 아동 100명에 ‘빠튼튼 키썩썩 건강교실’ 운영

임실군이 오는 26일부터 관촌 전원지역 아동센터를 시작으로 ‘빠튼튼 키썩썩 아동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의 아동 100여 명에게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 건강교실은 1개소당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체성분(인바디) 측정을 통한 체지방 분석, 비만 진단, 개인별 맞춤 상담과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 스트레칭 등 신체활동 교육으로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 ▲비만 예방과 신체활동 교육 ▲음주 폐해 예방 교육 ▲올바른 칫솔질 방법 ▲건강한 식습관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동들이 빠튼튼 키썩썩 건강교실을 통해 편식을 예방하고 올바른 신체활동을 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물’ 입점 업체 농가 대상 온라인 B2C 마케팅 설명회 열어

장수군은 25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장수군 농특산물 직영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 입점 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마케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입점 업체 및 농가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장수물 입점시 혜택사항 ▲전년도 장수물의 매출 성과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장수물 홈페이지를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입점 업체에 요청할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고객 및 상품 관리, 전산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물이 앞으로 더욱 성장해 입점 농가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물은 2024년에 전년대비 202% 증가한 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에는 매출 15억원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임실군이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2025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지난 21일 보고회를 개최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중간보고로 임실군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수행자가 참여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임실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 첫 수립하는 것으로 임실군의 향후 5년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단계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계획수립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 현황, 화학사고 대비 대응 역량 목표 및 세부 계획, 화학사고 예방 대책,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오는 4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시설농업 확대…이상기후 대응

농업환경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기대, 수박·토마토 등 6개 품목 및 멜론 시설 재배

진안군이 이상기후 발생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 확대에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44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인 20여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다수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진안군 특화 품목인 수박, 토마토, 오이, 상추, 딸기, 깻잎 등 6개 품목과 멜론 시설 재배 신규 또는 기존 농가이다.

지원 내용은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이다.

이에 25일에는 군 관계자, 농협, 농민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기준과 평가표를 철저히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번 비닐하우스 사업 확대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군 특화 품목인 상추, 깻잎 등에 대한 생산 기반을 다져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관영 지사, “천만관광 임실시대 함께 실현” 약속

김 도지사, “임실 관광 성과 실감해…옥정호 교량 신설 적극 지원하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임실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실군의 발전과 괄목할 만한 관광의 성과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천만관광 명품도시 실현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심 민 군수와 가진 간담회에서 “옥정호가 명품 생태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출렁다리와 붕어섬, 용운마을과 수변데크를 잇는 생태탐방교량 신설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라는 주제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과 임실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지사는 임실군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 임실군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비전을 밝혔고, 임실군의 주요 성과와 각종 현안 사업 등을 경청했다.

군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약속의 실천’을 주제로 도정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임실군의 발전과 괄목할 만한 관광의 성과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천만관광 명품도시 임실 실현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임실군의 더 큰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돈을 쓰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호텔과 음식점 등 숙박 및 맛집 투자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이 중요하다”며 “관광을 위해 힘 안 쓰는 시장 군수는 없지만, 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N지스책제의 성공요인 중 하나도 먹거리, 먹방투어로 임실지스책

제와 함께 옥정호와 붕어섬 등이 연계한 천만관광 명품 관광도시 임실도 속도가 있게 추진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심 민 군수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임실군민과 함께 기원하고, 임실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에 임실군이 함께하겠다”며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처음으로 치러지는 옥정호 벚꽃축제에 꼭 와주셔서 옥정호의 놀라운 관광 발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국 태권도 우수 선수들, 동계 훈련도 무주에서

무주군 국민체육센터서 스토브리그 훈련 진행…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대한체육회 등록 선수)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은 선수들의 실력과 체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 태권도협회(회장 이도우)가 지난 ‘20년’부터 5회째 주관해 오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펼쳐질 훈련에는 고등부(17개 팀), 대학부(3개 팀), 해외(1개 팀, 호주

주니어 대표) 등 총 21개 팀이 참여하며 선수들은 4일간 체력 강화를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프로그램’, 그리고 실전 경험을 위한 토너먼트 시범경기에서 기량을 펼치게 된다.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박금규 과장은 “전국 태권도 우수선수초청 훈련이 전국의 태권도 선수들에게 태권도 성취 무주를 알리고 선수로서 자긍심을 키우는 꿈의 장이 되고 있다”라며 “무주군 학교 태권도 선수들 또한 다양한 선수들과 훈련하며 동기부여를 받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한 해 평균 3억여 원의 직간접 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19개 팀이 참가해 훈련을 펼쳤으며 무주군태권도협회 이도우 회장이 ‘전국태권도 우수선수초청 스토브리그 훈련’의 무주군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최의호 기자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성료

장수군은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 케이티를 호텔에서 ‘2025년 재경장수군민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와 최한주 군의회 의장, 박희승 국회의원,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前)박용진 국회의원, 향우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장상진 재경장수군민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형목 행정지원과장의 초청인사 소개를 시작으로 제26대 이종순 군민회장의 이임사, 최훈식 군수의 축사 및 고항사람 기부금 전달식, 제27대 하상환 군민

회장의 취임사, 장학금 전달식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수 티앤시 회장이자 재경장수군민회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박창군 고문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하며 3년 연속으로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실천해 눈길을 끌었다.

이임하는 이종순 군민회장은 “이제는 새로운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재경장수군민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군민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

취임하는 하상환 군민회장은 “향우회원 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군민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며 “그동안의 열정과 헌신을 본받아 더욱더 발전하는 재경장수군민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훈식 군수는 “향우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 덕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됐고, 누적모금액 11억 원을 달성했다”며 “2025년에도 ‘작지만 강한 장수’, ‘살기 좋은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베트남 교민 2세대들, 무주군 방문 3도·3군 관광협의화-베트남 하노이 한인회, 교류행사

3도·3군(전북 무주, 충북 영동, 충남 금산) 관광협의회가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와 교류 행사의 일환으로 한베 교민 2세를 비롯한 베트남 현지 언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이들이 24일 무주군을 찾았다.

무주군에 여장을 푼 일행은 25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곤도리를 타고 덕유산에 올랐으며 스키를 타면서 무주의 겨울을 만끽했다.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 공연을 관람했다.

24일에는 충북 영동군 와인 빌리지를 관람하고 천고각을 둘러봤으며 25일 무주방문 후에는 금산 풍물 인삼시장을 견학했다. 이들은 28일까지 서울 투어를 마친 뒤 출

국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3도·3군 관광 국제화와 한인회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3도·3군 관광협의회는 베트남 관광객 대상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교민 2세 한국 역사문화탐방을 추진 중이다.

또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한·베 우정의 거리’ 행사에서 홍보부스도 운영할 바 있다.

한인회는 베트남 현지 발행 교민지에 3도·3군의 관광 정보와 주요 행사 소식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진안군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 기준은 167만 1,334원 이하

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확대됐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군민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급여가 제공된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 대해서는 전북형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공동모금회, 재난적으로 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민간사회단체에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 열려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의 주재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예산결산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추진위원회 위원 변경 및 위촉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일차 확정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18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RED FOOD FESTIVAL’로 명칭을 변경하며 ▲축제의 다양성 확장 ▲종합경기장 4,500여 석의 특성 무대 확보 ▲2만 5천본의 국화 전시

▲축제장 음식의 착한가격 유지 ▲전 판매점의 다화용기 및 친환경 용기 사용 등 친환경 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갔다.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는 올해 추석 2주 전인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장수군의 특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차별화된 전략을 도입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수자원 활용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진안군은 올해 개최 예정인 ‘물 문화 포럼’추진을 위한 준비모임을 25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진안군(군수 전춘성), ㈜케이위터운영관리(사장 우달식), 한국물포럼(총재 박결호)이 참가해 물포럼 개최를 위한 각 기관사업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안군은 관내 용담호 등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물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수 치유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물문화 포럼을 추진한다

모임에서는 ▲강문화관·물문화관 운영현황 ▲진안군 수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물 문화의 개념과 확산 사례 등 3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을 비롯해 한국물포럼 주제 하에 물포럼 추진시기, 주제, 참여기관 등

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제발표는 물 문화에 대한 법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물문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진안군과 ㈜케이위터운영관리는 지난해 11월 수자원과 수치유법을 활용한 치유관광 사업의 공동발굴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1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물포럼은 미래 물 관련 정책 비전을 제시 및 물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교류 촉진 채널로 이번 물포럼 확산을 위한 준비 모임을 통해 진안군과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시 달하미술관, 지역작가 전시 개최... 강희경 작가 작품 선보여

정읍시가 지역작가 조명 전시를 개최하며 강희경 작가의 유리 회화 작품을 통해 자연이 주는 생명의 감각을 선보인다.

시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은 지난 2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지역작가 조명 1차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4명의 작가 중 강희경 작가의 '안전한 숲 Safe Forest' 전시로 시작된다.

강희경 작가는 유리 회화 20점을 선보이며 신태인·연지·수성 달하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은 산책길에서 마주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안식과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휴관일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관람이 가능하다. 단, 신태인 전시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4월 2차 전시, 9월 3차 전시, 10월 4차 전시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국제와이즈멘 전주완산클럽·전주이든치과, 라면 100박스 기부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완산클럽(회장 천민권)과 전주이든치과(원장 유승환)는 지난 25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100박스(2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국제와이즈멘 전주완산클럽과 전주이든치과는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지속된 추위로 겨울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천민권 국제와이즈멘 전주완산클럽 회장은 "취약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전주완산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주)금호엔비텍·(주)금호로지스, 2천만 원 기탁

군산시 이웃사랑 성금 전달...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으로 1억 이상 기부

(주)금호엔비텍·(주)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가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주)금호엔비텍·(주)금호로지스는 대야면에 소재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이지태 대표는 5년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으로 지속적인 선행을 펼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왔다.

임직원들 역시 해마다 난방 취



(주)금호엔비텍·(주)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가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천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약계층을 위한 임직원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25일 기탁식에 참석한 이지태 대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기탁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우수정, 청소년 포상제 '동장'

자기개발·신체 단련·탐험 활동 등 수행... "포상제 활동 하면서 뷰티 아티스트의 꿈 가지게 되었다"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우수정(고산고·1)양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포상제 포상식'에서 '동장' 포상을 받았다.

유 양은 봉사활동,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포상제에서는 매주 활동내용 사진인증, 기록, 보고서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유 양은 "포상제 활동을 하면서 뷰티 아티스트의 꿈을 가지게 되었

고, 뷰티 학원을 다니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서 자부심이 생겼다"며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청소년들과 함께 포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취포상제 설명회를 실시 개최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우수정(고산고·1)양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포상제 포상식'에서 '동장' 포상을 받았다



남원 금동장학회 장학금 지급...지역 인재육성 기여

금동장학회(회장 표태수)는 지난 24일 2025년도 장학생으로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명 총 4명을 선발하여 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금동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자녀 중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매년 4명 내외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동장학회 기금은 1989년 당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던 모 독자로부터 모친상 조의금으로 받은 돈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기탁함으로써 마련됐으며, 그 후 1991년 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올해까지 총 130명을 선발하여 4,368만원을 지급하였다.

금동장학회장(표태수)과 금동장(김봉례)은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동문 교수, 익산 어린이 꿈 위한 힘찬 서브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익산 어린이들의 꿈을 향해 희망의 스매싱을 날린다.

익산시는 한울타리 봉사단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제2호 희망공부방' 지원에 나섰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한울타리 봉사단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김동문 교수와 전북을 대표하는 배드민턴 스타 하태권·이덕준·황선호가 올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제2호 희망공부방 지원 대상은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자 두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손가정으로, 거주하던 집이 화재 피해를 입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울타리 봉사단은 학습에 필수적인 책상과 의자를 비롯해 옷장 등의 가구를 지원하며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부방을 마련했다.

대상 가정의 조모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후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한울타리 봉사단의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다시 용기를 얻게 돼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무주군에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30박스 전달

무주군은 지난 25일 전북은행(은행장 백승일) 전상의 부행장과 김성수 지점장이 방문,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13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선물꾸러미에는 즉석밥과 라면, 김 등 9개 상품이 들어 있으며 총 39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전상의 부행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은행으로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먹거리 선물꾸러미를 준비했다"라며 "꾸러미를 받는 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이웃사랑 선물꾸러미는 전북은행 본부 사회공헌부에서 보내온 것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고창군 신림면 산악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고창군 신림면 산악회(회장 동순동)가 지난 24일 신림면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신림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순동 고창군 신림면 산악회장은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듯,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희망의 새싹이 돋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완 고창군 신림면장은 "따뜻한 봄소식처럼 훈훈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림면 산악회 동순동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신림면이 더욱 따뜻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접 만든 밀반찬 나눔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영)가 지난 25일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밀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취약계층 100세대를 직접 찾아 손수 만든 밀반찬(장조림)을 전달함과 동시에 안부 확인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밀반찬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매끼니 식사를 챙기기도 어려운데 잊지 않고 이렇게 직접 와서 밀반찬을 나눠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최준영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밀반찬을 준비하였다"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벗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탄소저감 실천 나부터!



〈一事一言〉



난세를 만든 역적, 난세가 만든 영웅(2)

오태규
언론인

제가 볼 때, 그는 7무-4비-4질을 두루 겸비한 최악의 피조물입니다. 7무는 무도, 무법, 무식, 무능, 무지, 무모, 무례를 가리킵니다. 4비는 비굴, 비겁, 비루, 비열입니다. 4질은 짜질, 췌질, 약질, 구질을 말합니다. 찾아보면 추가할 게 더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감도 품위도 도의도 갖추지 못한 그는 현실의 법정뿐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논다고 그의 주위에는 아직도 그를 감싸고 도는 간신배들이 득시글합니다. 위헌·위법의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도 '경고성 계엄',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재판 중이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느니 하면서 흑세무민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전·현직 장군들이 맨 앞줄에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발령 전날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부터 흔치 않은 문자 2통을 받고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현실수설한 외교관 출신 조태웅 국정원장도 같은 족속입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은 이런 와중에서 몇몇 영웅들도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의 체포명단을 가장 먼저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사령관의 국회의원사당 진입 지시를 받고도 제

고를 요청하며 거부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계엄 발령 당일 불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유일하게 사표를 던진 류혁 전 법무부 검찰관,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령의 지시를 까발린 박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기에 당당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선택적 기억도 없고 전과 후의 논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주저함이 나 어색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100번 이상 낙하 훈련을 소화한 베테랑 공수부대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베테랑인 데도 낙하 훈련을 계속하는 건, 유사시에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익힌 대로 망설이지 않고 즉각 뛰어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류혁 전 감사관이 계엄 당일 소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 도착하자마자 사표를 던진 행위는 그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도 불법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결과일 것입니다.

홍 전 차장은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라고요.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집에 가서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저녁식사 하고 TV 보는 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병커에 갖다 넣는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

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북한 보위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월 13일 현재에 증인으로 나온 조 경비단장은 윤석열 쪽 변호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 '사령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라고 비꼬자,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답하게 맞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이번 내란 사태 와중에 쏟아진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명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태도와 어조만 보고도 그들의 말이 진실이고 분심이라는 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이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터이기에 더욱더 가슴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박종근 사령관은 내란 주요 가담 장군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진실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이라 녹음이 되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잘못하면 부하들이 화를 당하겠다는 생각에 사실대로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생

생할 때 글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놓은 뒤 그것을 기준 삼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의 회유와 겁박에도 진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도 의인입니다.

123 내란은 좋은 학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곧 선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소인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홍장원, 조성현, 류혁, 박종근처럼 상식과 양심, 책임감과 정의감을 갖춘 사람들이 누란의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악인에게 철퇴를 가하고 선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내란을 종식하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경제, 역성장의 경고를 직시하라

전북자치도의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충북과 함께 유일하게 역성장을 했다. 전국 평균 성장률이 1.4%에 그쳤다고는 하나, 전북의 마이너스 성장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명목 GRDP는 증가했지만 실질 GRDP는 감소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소득과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전북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이 6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조업 생산지수의 지속적 하락은 결국 고용 창출과 소득 증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청년층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지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1인당 GRDP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순위는 14위로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의 78% 수준이며 경제 규모가 큰 지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는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성과

는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 유치는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제조업 비중 감소를 단순히 산업구조 변화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신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도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지원책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이 요구된다. 먼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전북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북의 농업과 연계한 스마트 농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전북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전북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단순한 구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결국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전북 경제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은 곧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강력한 경제 회생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즉시 실행해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이영춘 가옥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주거생활, 가옥
-지정일- 2003년 10월 31일
-시대- 일제강점기
-소재지- 군산시 동개정길 7 (개정동)

▲오늘의시

정든 세월에게 / 안도현

홍매화 꽃망울 달기 시작하는데
싸락눈이 내렸다.

나는 이제 너의 상처를
감싸주지 않을 거야
너 아픈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너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백지 위에도 쓰지 않을거야

매화나무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나뭇가지 속이뜨거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너를 위하여
내가 흘린 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거야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싸락눈이 봄날을 건너가고 있었다.

시인 약력 :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대구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를 거쳐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낙동강'이 당선되면서 데뷔했고

1985년 이리중학교 국어교사를 하다 전교조에 참여해 해임됐다. 1994년 장수 산서고등학교로 복직했으나 1997년에 퇴직 후 전업작가로 활동했다.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

인상, 1998년 소월 시 문학상, 2000년 원광문학상, 2002년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우석대 문창과 교수를 하면서 작가 활동을 병행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불려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당신의 하루를 여는 신뢰의 뉴-스,
전북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대표전화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익산시, 교육발전특구사업 본격 운영 맞춤형 교육 혁신

아이들과 가정 · 교원까지
보듬는 26개 혁신 사업 추진
유아 돌봄부터 진로 탐색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실현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 익산시가 올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교육발전특구 26개 사업에 229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 등 지역 교육 주체들과 협력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교육 혁신, 지역 거주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출범...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추진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익산교육지원청·원광대학교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핵심 협의체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방과후학습관 운영, 특별강사제 도입, 교원 치유·힐링 프로그램 등 26개 사업 중 15개 핵심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원광대학교의 교육 자원과 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맡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원광대학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시는 지난해 12월 교육공동체지원센터와 협력해 중·고등학생 대상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운영했다. 이 캠프는 학생들이 대학교 교육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공별로 ▲의예과 '우리 신체의 탐구' ▲경찰행정학과 '추리 및 알리바이 분석' ▲미술학과 '도자기 만들기 등 맞춤형 체험이 제공됐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학교 수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육자 복지 강화



지난 7일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교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차후명상, 아로마 치료, 산림 치유, 한방 교육 등으로 구성된 교사들의 심신 회복을 지원했다.

스트레스 검사와 맞춤형 통합의학 치료를 병행해 교육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가자들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방과후 늘봄교육 학습관 '더봄' 시범운영 성료

시는 공공형 방과후 학습관 '더봄'을 지난 10~11일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지역 초등학생 48명이 참여해 미술 심리체험, 원예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을 키웠다.

단순 돌봄을 넘어 공방, 웹툰 제작, 치어리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더봄'을 정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연 속 배움... 익산형 농촌유학 가족캠프 운영

시는 지난 18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익산형 농촌유학 가족캠프'를 운영했다. 캠프에는 수도권 초등학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참여해 승마, 골프, 농촌 체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

졌다.

시가 추진 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학교에서 학습하며, 자연 친화적 교육과 공동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용포초등학교·함라초등학교가 협력 학교로 지정돼 있으며, 참여 가구에는 월 50만 원의 유학경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익산이 명품 교육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저기, 농촌에 새바람이 들어와요"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과의 협동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으로부터
전 세계로 나아갈 자신감으로부터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 조상완
부안농협 조합장 김원철
남부안농협 조합장 최우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 신정식
변산농협 조합장 김병식

계화농협 조합장 이석훈
하서농협 조합장 기세원